

독후감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계간 잡지 당대비평 2003년 가을호(통권 23호)에 “무능력”이 특집으로 꾸며졌습죠. 다섯분의 글이 실려있는데 그중 “이경” 이란 분의 글이 바로 지금 제가 독후감을 쓰려는 대상입니다. 제목은 “무능력의 천민 집단, 여성” 입니다. 다섯편의 글을 아우르는 이 특집 기사의 제목은 “ 무능력- ‘가능성의 재앙’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잠시 특집의 기획의도를 내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옮겨봅니다. “ 우리 사회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무직자, 게으른자를 무능력자로 불러왔는데 여기에 요새는 신용불량이 무능력의 대표적 표상이되면서 비자발적 무능력자인 백수, 실직자도 무능력자로 등록되고있다. 노동의 유연성이란 미명으로 자행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구조조정, 해고 사태는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무능력자의 나락으로 떨어질수있다는 가능성의 재앙으로 열려있다.”

아래 글은 그대로 옮겨본 것입니다..

“무능력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제, 이것은 배제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회적 야만성에 적극적인 공모자가된 시민사회의 비성찰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다.”

능력담론에 아무 생각없이 빠져(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사실 교육이라는 상징폭력을 통해서 훈육된 것이지만) 무능력자를 울타리 밖으로 배제시키는 우리들을 한번 반성적으로 돌아보자는 얘기죠.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필자는 계몽주의적 ‘도구적 합리주의’와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의 ‘능력 담론’, 그리고 근대사회의 ‘상징 폭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훈련된 무능력자로 혹은 배제된 능력자로 위치해 왔는가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보여 줍니다. 그리고 능력 담론을 비껴보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내 실존에 전극을 갖다대는듯한 찌르르한 전율을 맛보며 책의 여백에 깨알 같은 댓글을 달며 두어번 더 읽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독후감을 쓰기위해 다시 읽으며 그때의 그 전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르트가 말하는 풍크툼이 사진 볼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글을 읽을 때도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플라시보(placebo) 효과’란 단어가 바로 풍크툼입니다. 제게는 ... (이경씨의 글의 부제가 바로 ‘무능력 담론의 플라시보 효과’ 입니다.) 전 플라시보란 단어를 이 글에서 참 들어 봤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위약(偽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더군요.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란 진짜 약이 아니라 가짜약을 먹고도 환자가 병이 낫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것이지요. 무능력 담론이 어떻게 플라시보 효과를 내는가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는 않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실존적 느낌으로 오더군요. 뒤상에 대한 석사 학위논문을 쓰면서 그가 예술은 진실이라기보다는 진정제(habit forming drug)다라고 얘기한걸 읽은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매혹 되면서도 한구석 미진감을 어렴풋이 느껴왔는데 오늘에야 그 미진감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술이 진실에 육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뒤상의 말에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미술이 진정제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원했던 말, 그것은 바로 플라시보였던 것입니다. (글쎄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뒤상이 진정제란 말로 플라시보를 의미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각설하고, 1장에서는 계급이나 신분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능력이 판단되는 합리주

의가 지배하는 근대에도 여성의 존재는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개인의 존재를 선언하였다지만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이념속에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필자가 참고 문헌으로 소개하고있는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를 읽어보니 박애라는것이 형제애- 자매애가 결코 아닌 -임을 밝혀주고 있더군요.)

근대 이래의 능력 담론이 도구적 합리주의만 가지고 , 즉 과정은 생략한채 결과만을 가지고 개인을 평가하여 그 개인을 공적영역, 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면 여성의 경우엔 여기에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적 능력담론 속에 여성을 편입시키려는 또 하나의 한정요인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땀 잡는게 매’라는 개인주의 신화(도구적 합리주의 신화, 자본주의의 신화, 능력담론의 신화) 아래서 능력이 능력을 낳고 이렇게 이중의 질곡아래 있는 여성은 계속 무능력자로 남게된다는 겁니다. 이점이 바로 여성 무능력의 발생 지점이라는 겁니다.

2장에서는 능력 신화가 태동하게된 배경과 능력 담론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체계가 상징폭력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인간을 능력자와 무능력자로 가르는 지배적 권력구조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신념체계를 생산하고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능력주의는 이런 지배권력을 합법화하는 신화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또한 혁명세력의 이념이었던 개인주의가 이런 능력신화와 결합되어 오늘날에는 저항주체로서의 집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주요한 힘으로 변질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4장에서는 현사회에서 여성은 근대적 능력담론의 희생자이며 또한 여전히 낮은 효력을 발휘하고있는 전근대적 가부장 질서의 희생자라는 이중의 질곡을 뒤집어 쓰고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능력이란 것이 자본권력(능력담론의 물적 토대) 뿐만아니라 가부장적 남성애 의해 재단되어야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출발부터 무능력하게 인식되고있으며 여성의 무능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성의 한계상황이라는 애길 하고있죠. 즉 여성의 무능력은 전근대와 근대를 통과하면서 훈련된 무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을 종속시키며 진행되는 근대의 이중성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남성 중심적인 상징체계와의 투쟁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할 것인가? 이부분이 5장 6장을 이루며 이 글의 하일라이트입니다. 무능력의 플라시보 효과란 말도 여기서 나오며 여기서 저는 ‘찌르르’ 를 느꼈었습죠. 예, 담은 무능력의 플라시보 효과를 신뢰하며 능력주의 신화를 흠쳐야한다는 겁니다.

우선 본문을 좀 인용합니다.

“근대 이래 무능력은 언제나 능력의 하위 개념, 부정태로서만 의미를 가져왔다. 하지만 능력이라는 관념 자체가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공적 영역 혹은 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노동이라는 규정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 이러한 담론 구조는 그 자체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는 신화에 다름이 아니다.”

“무능력/ 능력의 대비는 항시 ‘무엇을 위한’이라는 도구적 합리주의의 판단기준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만일 그 기준을 달리한다면 그 대당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

지거나 이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바로 이점에서 능력의 부정태로서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서의 무능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무능력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도만으로도 능력의 독재는 그 힘을 조금씩 잃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무능력 효과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무능력 선언은 근대의 이중성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증언이다. 능력만이 처방인 사회에서 무능력은 가짜 약이지만 그러나 이 위약으로부터 진짜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실질이다.”

저는 얼마전까지도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렸고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도 우울한 페시미스트였습니다. 전 그때 절망이 ‘홀륭한 약(이경씨에게서 배운대로라면 위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미술계에까지도 불어 닥치고있는 우리 사회의 성공 신화에 제가 휘둘리지 않고, 몸을 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울증과 절망감 덕이었을 겁니다. 좀 ‘네거티브한 전략’이라고요? 아뇨, 저는 이것을 ‘페미니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곧 신뢰해온 이러한 페미니즘 전략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이경씨 글에서 받았기 때문에 ‘찌르르’ 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엣그제 중앙일보를 보니 도법스님, 수경스님을 비롯한 신부, 목사, 시인 등등 100여명이 탁발 순례단을 꾸며 지리산 주변부터 시작하여 정처없이 순례의 길을 떠난다더군요. 하루 30리씩, 세상의 평화를 찢어버린 난폭한 우리의 탐욕을 뉘우치며, 승가 정신의 가장 기본이라는 걸식을하며...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글을 맺고있습니다.

“모든걸 버리고, 모든걸 받아들이겠다며 표표히 떠나는 그들의 걸음걸음이 우리사회를 이기심의 업(業)에서 독립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지... 지리산 푸른 하늘은 지상의 ‘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굳이 이 기자의 맺음말을 인용하는 것은 이 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유포적인 마음, 반신 반의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맘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러한 생명운동, 살림운동과 같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뭔가 손에 확실히 잡히는 답을 달라는 능력 담론, 도구적 합리주의병에 걸린 우리의 머리에 와 닿지가 않는겁니다. 이러한 정신병의 치료에 좋은 약이 바로 플라시보라는 겁니다. 얘기가 장황해 지네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할텐데...다시 말해 살림 운동, 생명운동과 같은 페미니즘 운동이 바로 플라시보이며 우리는 그 플라시보의 효과를 믿어야한다는 거죠. 플라시보는 믿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시보죠. 예술가들은 플라시보 효과에 중독된 자들이고요. 아니면 플라시보의 ‘홍보대사’ 라고나 할까 ‘판촉사원’이라고나 할까..

마무리 들어갑니다.

능력 신화를 어떻게 흠쳐야하는가(능력 신화를 어떻게 비껴갈 것인가란 말보다 훨씬 ‘활동가적’이죠?). 또 좀 인용합니다.

“자본 권력은 이윤 추구를 위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작업장-를 마련한다. 그곳은 노동이 상품으로 비인격화되는 현장이자 남성 주체의 가부장적 권력이 부유하는

통로이다. 바로 이 권력의 전략이 작용하는 지점에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여성주의적 전술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작업장을 노동사회에서 주변화되었던 시간과 자율성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복원시켜낼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변용하여야한다”

필자의 서술은 점점 구체성을 띠며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성과 성과주의에 함몰된 기계적 노동 혹은 능력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그 선행 조건으로 한다. 자본 권력이 부여한 평가규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현재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개인으로 단자화된 노동상품간의 경쟁이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이해와 배려, 생산과 성과를 향하여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노동이 아니라 일터와 집과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목민적 삶의 방식, 위계와 조직의 논리를 넘어서는 협업과 포용, 능력-근면-성실의 담론을 깨고 작업장 감시를 희롱하는 여가와 즐김의 시간 개념, 이 모두는 자본권력과 가부장권력이 부여한 규율권력에 조그만 틈을내고 ‘훈련된 무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여성주의적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일단 직장에 진입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러한 ‘진지’에의 진입이 봉쇄된 마당에는 어찌해야하나?

이제 필자가 때린 결론을 소개합니다. 여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능력담론의 바깥에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임을 ‘언술화’해야한다는 겁니다. 회색의 밀립(능력의 담론이 구성해 놓은 상징체계)에 갇히지 않는자의 힘으로 능력주의의 신화를 흠쳐내야 한다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귀족적 선언에서 느림에 대한 환경적 선언까지 무능력의 수사학을 펼쳐 내야 한다는 겁니다. 무능력은 능력의 반대어가 아니라 능력과 겹쳐져있는 또 다른 면 (이면)이며 능력은 그 의미를 무능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능력있는자가 일생을 통하여 끌어모은 화폐권력이나 지식권력이 궁극적으로 의미를 갖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국 그것을 나눔, 줌으로써 그것의 의미는 완성이 되는 것이란 얘기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자가 살아 생전에도 그의 능력을 완성하려면 “줌으로써 확장되는 살림의 방식” 즉 무능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줌으로써 확장되는 살림의 방식은 유사 이래 여성의 전유물이 되어왔던 것이며 시간적, 공간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인간적으로 확장되는 생존의 넓이는 여성들 사이에서 확보되어 온 것이란 겁니다.

여기서 잠시 앞서 얘기한 결식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식 순례를 떠나며 도법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식이란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무엇이든 그저 끌어 모으는데만 혈안이된 인간의 탐욕을 반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탐욕적인 능력 담론을 반성하기 위하여 결식이라는 무능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결식이라는 무능력한 행위가 능력주의 신화를 흠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승가사상의 기본이 되는 결식이 고대 인도에서는 하나의 경제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었나봅니다. 아직 공부하는 불자들은 결식으로 생활을 했고 이제 그가 결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게되면 의무적으로 결식자들을 먹여주었

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도 나도 능력자가 되려 경쟁에 나서지않고 여건상 가능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얹혀서 먹고사는 그런 경제구조 말입니다. 모두가 더 잘먹고 더 잘살기 위해 모두가 다 무한 경쟁으로 내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들중 절반 정도는 좀 얻어먹으며 살림운동, 생명운동, 예술가 활동, 페미니즘운동 좀 하면 안되는 걸까요? 제 얘기가 말도 안되나요? 아뇨 말이 되죠. 말이 되는거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 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언술화”가 부족했을 뿐이지요. 저의 이 버벅대는 글도 이런 언술화에 좀 도움이 될까해서 쓰는거라고나 할까요?

이제 이 글을 저 자신의 실존에 피드백하면서 읽고 쓰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른 것 같군요. 저는 남성이고 미술 대학 교수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도록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자일까요? 아닙니다. 능력담론의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능력자가 될 수없죠. 나는 미술안에서 성공과 성취에 여전히 배고픈 (히딩크식 표현입니다)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또 나는 무능력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미술계에서 누구도 나를 무능력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는 이경씨의 글을 읽으며 능력담론, 능력신화의 고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 위치에서 능력담론, 능력신화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여전히 배고파 하지말고 자족하며 더 이상 끌어모으려하지 말고 나눔, 줌을 실천하는 것이란 자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 자각을 얼마나 각론으로 풀어 실천 할런지.... (그런데 잘나가다 끝맺음이 너무 무기력한거 아니야? 아니야, 무기력하게 끝맺음을하는게 무능력 담론을 수행하는 거야. ㅋㅋㅋㅋㅋ. 2004. 3.6 7:40 p.m.)